



秀 鑄

發行所
서울大學校 同憲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 銀行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 銀行자료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10.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number of hours worked by 1000 workers in a certain industry.

謹賀新年

母校의 荣譽、同門의 荣光



冠岳春秋

祝 서울大學校同窓會發展

簡 慢 而 日 章

己巳元朝 趙淳



『君子』는 겨이로 보기에는 베도 나타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어두운 것 같이나

속이로는 떨마다 새롭고, 밝게 진보한다』는 中庸에서 나온 말。

〈49년 商大卒·副總理겸 經濟企劃院長官〉

新年頌詩

당신

1989년 새해 아침

의 꿈처럼 어여쁜 매오, 아무도 밟지 않은 흰 길 같은 것이었
습니다.

해마다 나는 당신에게 부끄럽습니다. 때 묻은 손으로 당신을
안을 때면 당신은 나를 닮아 더러워집니다. 당신의 가슴이 나의
가슴과 구별이 안 갈 만큼 너러워지면 어느덧 나는 부끄러운 마음까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해마다 당신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얼마나
나 늙고 추해졌는지 알지도 못할 테지요. 해마다 당신이 내게
로 오지 않는다면 지금쯤 나는 얼마나 더 늙고 추해졌을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당신은 내게로 옵니다. 깎아지른 산 위의 푸
른 물처럼, 아무도 밟지 않은 눈덮인 흰 길처럼…… 사랑하는
당신, 나는 당신의 가슴을 마구 더럽힐 일 겁이 납니다.

오, 내년 이맘때면 덕지덕지 묻은 때처럼 내 가슴에 남을 당

해마다 당신은 나를 찾아옵니다. 날마다 나는 늙고 추해집니
니다. 해마다 당신은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늙고 추해집니
다. 나는 당신에게 부끄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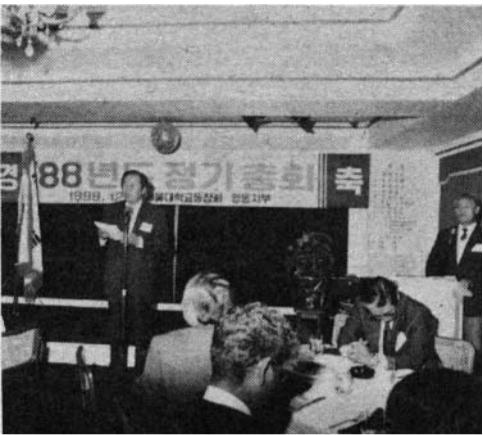
인연못의 푸른 물이거나, 밤새 눈내려 온 마을 집들이 북극

신!



16 개 부처
同門이 책임
副總理 趙淳財務 李揆成建設 朴昇一
安企部長 朴世直文教 鄭元植保社 文太俊
外務 崔浩中商工 韓昇洙交通 金昌槿
內務 李漢東動資 李鳳瑞遞信 崔永喆
科
技
處
李
祥
義
文
公
崔
秉
列

冠岳會 올豫算 2억9천만원



◇ 碣東지부 정기총회 광경

嶺東지부 定總 성류

1차 名簿編纂委員會 열려

母校 – 单大동창회 実務책임자로 구성

회장에孫泰永동문

한화 가지 화학 대회 모금
부회장인 鄭東昇(정동승) 씨
이 일제 때였던 1920년
주소내 상금의 금액을
◇MEAADOWS BUILDING DRUG 564 MILTON Suite 1200 DALLAS, TEXAS, 75206.

사회에서 결성된 면밀한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었다.
이날 보고된 바에 따르면 최근 회원부는 동성회로 20주년 기념사업으로 2월 말까지는 간접적으로 20주년을 맞이하도록 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해 전총연자 대별로 발간된 와期별 써클별 소재와 아울러 대별로 보여주고 이와 문들의 명행해줄것을 보여주고 문들을 현住부를 확인작성 부탁하는데 있다.

교. 전설경제전문학교. 경성전
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하고. 수원농림전문학교. 경성
성공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문화교과. 흔수
써 일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
었다. 국립종합대학교가 되어
이리하여 국립서울대학교로는
는 단과대학으로는 文理科大學
大學. 師範大學. 法科大學.
商科大學. 工科大學. 美術大學.
學. 醫科大學. 歯科大學. 藥
科大學 그리고 위에 大學을
院을 두는 편제가 되었다.
그후 결성학전문학교가 되어
임되어 지금의 樂華大學이

「國立서울大學校」의 創設 〈下〉

—국립서울대학교—
교수
유일한 대학이었던 「전성대학」
학」을 비롯하여 전부하고
였던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
자사범학교, 경성중등전문학교

학·가정학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大學
校의 뿌리」를 찾는데 있
어 현제를 주축으로 하
되 톡수 대학원에 대해서도
실퍼 보려고 한다. 40여
년간 서울대학교는
제작 하나의 「문물적
생명 공동체」로서 자·기·성
격 협상을 위하여 성장중
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종합대학교이다.
생각컨대 서울대학교는
세 가지 시기로 지기 성
격 형성과정을 구분지울수
있을 것 같다.

시금 대신통
장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연 각 단위로 되었다.
가교에서 나마
교과부의 기관을
총장이었던 崔秉南 박사의
행정력 발휘가 크게
보았다. 그기에
연합체적인 형태로
성적과 문위가
어져 갔던 것이다. 이것은
1953년 여름 서울주립
이후에도 계속 같은 문위
기준 유지되었다.
3. 종합대학 체제
시기 (1975~현재) 그린
1975년 서울대학
본부를 비롯하여 대부
분의 단과대학이 현재 우
리가 자리 잡고 있는
마침내 서울대학교는 전정



◇综合化를 이룬한 窓岳캠퍼스正門의 웅장한 모습

노
니라고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연구
제가 현재와 같이 된 것
은 1975년 2월 대통
령령 제7-565호(서울대
학교 설치령) 개정령)에 의
한 것으로서 경상대학원·
교육대학원·신문대학원·문
리대학원·상과대학·교양과
정부가 폐지되었다.
한편 인문대학·사회과학
대학·자연과학대학·전형대학

체의식이 너무 강했던 시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연체적이라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韓基彥

49
師大卒・母校師大_三年生

◇ 崔奎南 전총장

겠다. 이 醉母는 그후 새
로 영원한 수많은 새로운
교수 진용들로 해서 계제
풀질 개량이 이루어지고자
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간 역대 출장으로서는
해리 비 앤스턴·李春芳,
張利郁·崔季東, 金斗憲·임
시관리(임시관리)·崔奎南,
日善 柳光烈(직무대리)·柳尹
重輝 徐明源(직무대리)·徐

대표적 종합대학으로 40년간 자리 굳혀

冠岳이전후 共同體意識 갈수록 높아져

-先驅的 자부심에 眞理탐구의 殿堂이 룩

그가 재임 중이었던 1951년 9월 3일 56·6·8은 6·25로 수란 종이었고 이어서 서수원에 복후 재전에 해당되는 모임이 여의치 않았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의 육행정력을 탁월하였고 성을 고양하는데 있어 참가되었던 「大學生報社」가 피난했던 부산에서 참간(1952. 2. 4.) 된 것도 그의 업적이다. 당시 「大學新聞」은 서울대학교 교학부 이아니 전주 교수로 되리라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회의실에 모여놓았는데 그들이 이를 놀라워하는 듯이 서로 꼽아야 되리라고 그 당시 「大學新聞」은 그의 업적을 칭찬하였다.

이야했던 사건 중의 하나는 문리파대학과 법리파대학에서 벌어진 쟁탈전이었다. 여기서는 사전에 예상한 대로 시민들은 대부분 법리파대학을 지지하는 듯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민들은 법리파대학을 지지하는 드물었고, 대신 문리파대학을 지지하는 드물었다. 예상과는 달리, 시민들은 법리파대학을 지지하는 드물었다. 예상과는 달리, 시민들은 법리파대학을 지지하는 드물었다.

은다는데는
우리나라의
것이다.
성과를
작게에
던 적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시울대 교수들이
되어 참되고 있다거나
후의 역대 학회장을
개설대학교수로 내지
죽대 출신자들에 의해
지되어 왕고 지급도
나는 것이 바로 酒母와
학풍의 소치리학자

리그 총장에 임특위를 하였고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통하여 청탁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의 무연한가를 짚이 진정한의원으로 되어온 바 박재 역할을 부여한 부합상이다.

89년의 展望

주대스

1989년 친일派를 政街도 新年을 개시했다. 1월 9일부터 大統領부 순시가 행해졌다. 2월 중순에는 일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統일에는

- ... 89년,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많은 변화가 ...○
 - ... 예상된다.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국 ...○
 - ... 방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망이 불투명한 ...○
 - ... 상황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 이 時點에서 '89년의 展望'欄을 特設...○
 - ... 專門家에게 이들 문제를 심도있게 다 ...○
 - ... 루기로 했다. <편집자註>...○

〈편집자註〉··○

在對勢力上、沿坡政策、黨
黨會下地方自治選舉에 참
여하고 地方行政上 투쟁을
벌이는 정부나政局은 안
정될 것이다. 만약에 現國
議員中 일부가 이革新
政黨에 가입하여 國회내에
교우를 구축하는 경우 保
守·革新政體制가 될 것
이며 革新政黨이 강행하지
는 경우 保守大聯合도 촉
진될 수 있을 것이다.
正黨의 對北方政策의 加速
화나 金泳三총재의 日本社
會黨 방문, 金大中총재의 訪
蘇·訪中 등이 社會民主主義
政黨壘壘에의 自律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社會民主主義
黨會下 地方自治選舉에 참

는 경우에 있어서 신임투표로 하는 것은 정부의 불신임당한 경우에 사임하는 대신에 헌법을 개정하거나 정부를 외친 국민들에게 차관으로 임명을 하거나 국무총리를 부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외에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그 외에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무총리를 부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외에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

政權은 7·4南北聲明後
중간 평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는 문제이다.朴
하나를 빙자해 獨裁의 인습
신헌법을 제정한 적도
있었다.北方政策이나統一政
策의 범경이 즉적인統一
기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
때문에 국민들에게 虛偽가
되었던 주는 국민부표가
국민부표를 하려는 경향
에도 黨派運動을 금지하고
있는 국민부표법의 개정에
선행되어야 하겠다. 대통령
의 이제까지의 治績이나
共非理算與否를 본는 국민
민투표의 결과 지지율이

그러나 民主主義政府에 대한 지탄이야마땅하다. 그러나 하여서는 참여하여 개혁하는 계획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들은 선거공약에도 전제적인 정체성을硬一邊倒, 論爭一邊倒의 態度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이루는 責任政黨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韓國會에서 韓國會指向의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議員에게 落第한 것을 명심해야 것이다. 국민들중에는 國民本位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中間評價信任투표실시 與否가 最大變數
各黨、政策開發 경쟁에서 국민支持 얻어야
強硬·투쟁一辺 倒의 舊態 시급히 탈피해야



金 哲 洙

〈56년 法大卒·母校 法學
研究所長·本報編輯委員〉

與否가 最大變數 시급히 탈피해야 국민支持 얻어야

在野세력의 急左傾化는 南北和解에 찬물결

— 北方·統一정책놓고 人氣迎승은 절대 금물 —

全方位外交 강화, 국내정치 安定이 우선 課題

여 제1回 국회 대회라고 있다고 하니
정이 제2회 국회 대회라고 있다고 하니
여 제3회 국회 대회라고 있다고 하니
도 많다. 民正黨、民主黨、
共和黨이 中選舉區로의 謝
舉法改正을 희망하고 있으나
平民黨이 반대할 것이다.
로 보인다. 人物選舉가 아닌
政黨選舉를 위하여 地
域選舉가 아닌 政策選舉를
위하여서는 中選舉區制나 大
選舉區比例代表制가 바람직
하다.

祖國이
解放되면서
民族教育의 段
君臨해
왔고 세 우
堂으로
계속의
大學으로
발전
해 왔다.
創設 아래
15년에 육
로는 祖國近代化的 旗手
각부에서 노부신
활약과 精進을
있음을 우리는 학생
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립하고 있다. 더욱
15만英才들은 母校의 발

同志会의 새해目標

치
행되도록
있어야
누구나가
으로도
스런
계속
列에
노력하는
는한
무엇이로도
겠지
조롭게
문들의
문들이
있기를
겁지
이
작업이
이루어도록
동
각별한
협조와
바란다.

는 일들이 없다. 우리 노력은 우리 노력은
15. 만물들의 十匙一飯 하루에 15. 만물들의 十匙一飯 하루에
는 精誠을 기대하고 建立基金造成을 위하여 했었으나 有力量의 둘째들의
면 다행스런 일이 아닙니다. 雖然不幸, 但有幸的是
넓수 없었다. 주業同門을 위한 제2의 캠페인 구성을 하게 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生을 위한 権學事業를 벌여야 것이다.
卒業生 없는 母校가 있음
을 수 없듯이 在學生 없
는 同窓會는 생활할수
없다. 先輩 동문들이 투철한 愛校정신과 後輩 사랑의 길은 바로 母校를 기리고 同窓會活性화의 길로 구결될 것이다. 그려
나 母校를 기리는 마음
만으로는 母校를 떠날수 없다. 母校의 발전이 同
窓會의 발전이며 동창

부기판, 특히 雖場支部는 기업체 및 비롯하여 일방기업체를 국가에 관해 걸쳐 조직도 되어 있는데, 우리 문들은 한결같이 要聯 차지하고 있다. 이 러한 支部들은 獨科大 및(院)의 태두리를 벼슬을 차지하고 있다. 이나 「같은 同門」으로 일체감을 실감하는 부서가 되고 있다. 그전에는 이를 支部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활동하는 **부진** **느낌**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발간
된다
회원명
내實 있는
있도록
아끼는
지침을
될 수
보다
극적인
않겠다
끌어로
수 있다
행기임
당자
해되는
부터는
일
이내에
행될
수
있도록
노

名簿 내년 總會이전 刊行위해 편찬작업 서둘러



① 会員名簿 발간
② 10億基金 조성
③ 同窓会의 内実化

동창회는 그동안 꾸준한 조직 강화 및擴大에 힘든 결과 현재 백 20여개의 職場支部를 비롯하여 地方에 14개의 支部가 결성되어 있다.

전회원 電算化 실현, 家庭통신도 계획

母校支援, 장학금지급 대폭 늘려갈듯

支部活性화위해 각종행사 적극 지원

方支部와의
유대강화에
재개하여
本支부
유대강화에
적극적인
발전사업의
弘報이다. 동창회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발간되는 회원명부
보다 內實 있는 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울大學校는 그 뿐
리가 李朝末葉인 18
95년에 써이 트기시
작·日帝治下를 거치고

금전의 同窓會 참령 20년을 맞은 「成年 의 해」이다. 동창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3大重要事業을 펼치기로 議決했다. 지난 12월 20일 열린 「同窓會의 결의 내용을 보면 「會員名簿 발간사업」 「10億基金조성사업」 「同窓會 內實化」 등의 力點 사업으로 동창회 창설 이래 획기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새해를 맞아 同窓會의 기발을 名譽相符合 이들을 동창회로서 군전하게 구축해야 하겠다는 집행진의 강령한 意志가 표현된 것으로 알므로의 동창회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리의 永久보존하여 우
작자되어 있는 등
員名簿 간행을 계획한
것이다. 사설의 동군간의
유대를 돋우히 하는 同窓
窓意識의 고취와 同窓
會의 활성화를 이룩하
는 起爆劑가 雖非 아니
광을 母校의 명예와 영
계기가 爲校시키는
신한다. 각동군들은
동안 동창회와의 연락
무동문을 두절되어 있는 그 확
일깨워주는 同窓이 이
무엇보다 아쉽다는 誠意
사무처의 若焉도 지적하는

서울大學校同窓會는他
大學에 比해 그
이 年淺한 것은
이나 가장 먼저
회 기동에 알맞고 向
後 1~2년이 지나도 멋
멋한 設計에 따른 가
장 멋진 同窓會館을 마련 했다.
자랑스럽고 멋진 快樂를 執行陣에서
이루어 놓은 셈이다.
동문들의 協議에
따라 준공된 이 회관
은 時價로 따져 70억 원의
건물로 계산된다.
中 會長團 出捐과 이 사 업에
의 솔선 참여한 동문들의

母校同士와後學在學生會을 위한獎學事業이同시에 대한事業이고 이사람들이 마련되어 있었던바에 동창회에서는 현재 동문들의出捐意念을不得하지만 되어 있어서는 전제적인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같은 대학을 위한事業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기금조성에 회관련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화기 제구신을
동물들은 뜻밖 한 입자에
에 셀 수 있으며, 혹시
배재학생과의 話의에
도 그 봉이 떠오른다.
이다.
종친회 기금조성의 구
체안은 곧 발표될 겸
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제2캠퍼스인 관
관이 회장단과 유관동
문 명부에 출연으로
련된 이 時點에서 이
基金조성운동엔 沈同窓
의인 次元에서 모두
참여해야 될 것이다. 10
韪一歲의 協調정신이 바
뀌된다면 목표달성을
할게 어려운 일이 아
것이다. 누구에게나
될 것이다. 아울러
스스로

간에 직에 은지에 대한 대로 그 없는데
유지될수가 있다. 그 조조를 때마다
만남이다. 어느 조조가 고집되며
재확인의 절차가 거친다. 막론하고 어려워
경우를 인정하는 재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이상한 한 사람의 情이란
취미를 개인 회회에 대한 대화를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에 해운 총사업으로
적인 출금성이 거행되는
예정이며, 3월말에는
가총회가 있을 계획이
데, 이때 동창회관
공식을 변행하는
장을 침몰되고 있으나
직은 미정된 상태이다.
이어 10월에는 '동창
날' 기념 천도봉산대회
에년과 마찬가지로
가족동반으로 거행될
계획이며 이밖에도
다운 모임을 계속
나갈 계획인바,
동물원에 려문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同門
 수 畢

물학의 기가 위한 고니 면 대화장의 풀이 어 떠했던가. 절작 할 수 있 것이다. 그러나 이 「전시연 학대학」이 영도섬 한쪽 구석에 바다가 지쳐 묵게 되었으니. 그만하게 우리들을 살피적인 뜻을지 었었으니. 그만한 면에 절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시연 학대학」이 영도섬 한쪽 구석에 바다가 지쳐 묵게 되었으니. 그만한 면에 절작할 수 있다.



金烈圭
(54년 文理大卒 ·
西江大교수)

둘둘 거린 조차도 대학보
다다는 몇 갑절 나아보였지
하침을 어슬렁댔다.
바다기 기운을 가라앉힐
혀준 덕택에 다음 시간
다부턴 참고 시험을 치웠지
대학의 첫 학기 첫
시험을 그럽게
열었지

전학대학 이란지 시작
되었던 부산시립 전국
조그만 영화제정이 전부로
학의 전부로 국장 암에
밸리벨 대학의 학생들을
제작하기

그런 것 같은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중에서도 피천
특 선생의 셀리강의가 전쟁의 소요를 잠시 잡아
간 일게하는 꿈같은 것을 마련하고 했다는 고 있다.
그런데도 학기 말은 찾

국은 학교에 있어서나 전제로서의 대로 인간교육을 듣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제도이다. 그들이 그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은 그걸로 한 정확한 자각과 함께 오늘도록 한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그걸로 한 정확한 자각과 함께 오늘도록 한 것이다.

으로 달한
의 었고, 왕자로
볼 다른 인간은
지구에
없는 문화

제
어느는
제로
만족시키기
오는
안게
된
것이다.
하기
어려운
생리외적
욕구로
갖게
된
문제를
운데서
가장
일방적이
고
어려운
것은
사회적
갈등의
것이다.
는
인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에

하고 하느له파
한국만국을
크게 운대서
발달 어
이자
가운데서
여는 그 풍부한
이지
세계의 파트
대인 표본을
있다.
우리를 위하여
것은 부부한
바람
높은 이지가
정령화
이후는 조화
이지
아니나 그것
결정한

에 있어서 정열적이면서도 고집적인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미운과 뜻함을 간직하는 경지가 가리키는 말이라 고 노여움과 또는 고난과 고정된 시선은 따위의 나쁜 감정과 동정과 사랑의 감정으로 성장하는 경제 후에 우가 많을 것이다. 간사스러운 잔 날에 대해서도 절제를 않지만, 때부터 천재으로 성장하는 경제 후에는 절제를 많아지는 것이다.

情熱斗知性



金泰吉
〈前人文大正今〉

教育의 영향이 人間형성 좌우 未來像에 맛도록 새세대 육성 힘써야

지 높의
발 달에 있어
서나 갑정의
발 달에 있어
서면 인간은
동물보다도
크게 앞
있다. 웨등하게
발

의
금자탑을
아울리기에 높이
그러나 인간은 그들
높은 지능과 발달
감정으로 말미암아
동물에게서는 불

이 되는 것도 있고,
절정 해결의 힘이 되는
것도 있다. 다만 그
분노 또는 경멸과 죄
등의 감정은 절대
일으키고 조장하-

이라는 이름의 신성이 되어
종합 힘으로서 작용한다.
정예이 풍부 하다는 것은
자체로 볼 때 일단
많은 가능성을 의미한
다른 뜻에서 일단
을 읽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도
다른 뜻이다. 그것이
제로 볼 때, 역시
것으로서 좋은
를 뿐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단지 자발적인
행동에 대한 것이다.

코
불가능한
일도
니다.
정열과
이지의
아
조화는
개인적으로
때는
안정된
인품의 조
건이며,
사회적으로
하는 자
유와 협동의 조
건이다.
정열과
이지의
어고며
한 배합을
“조화”
부를 것인
나 하는
것은 대답하기
쉬운 물辱이
아니다.
시대와
살황을
따라서 “조화”
의 기
필요한
배합의
기

이지의 비중이 좀 우
세한 편이 시대의 삼
황에 알맞은 것이다.
「정령」이라는 것과 「이
자」라는 것이 동립된
요소로서 마음속에 자자
리잡고 있는 무언가를
널것이다. 정열과 이지
조화를 이룬다. 합친
가지는 그 이를을 기준으로
마음의 요소가 적당한
비율로 배합될 때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작용할

飲酒健康論

다.
제국의 친왕이 되면 모
든 친왕이 절대 친왕
되고 있다. 왕위에 놓여
마땅히 놓여 된다.
그리므로 솔을 풀기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마
시는 것이 솔건강화의
알파와 어려가라고 할
수 있었다.

營養·水分 적당량 조절의 지혜 필요

광선·온도의 被害 위치 옮김이 중요

보통 사람들은 무는 일이든지 인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살도록 조심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반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은 있다. 그려 사람들은 살되면 천재이지만 봉되면 행과 괴짜로 인생을 살 때로 끝내게 된다. 술을 마시는 것도 적당한 한계를 지키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나면 망친다. 그래서 술을 침마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도문罪惡의 근원이라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술과 건강의 관계만 보더라도 지나

〔In vino veritas!〕
「在酒中見眞理也。」

의 문제점

2. 물질과 물질에 대한 철학적 고찰

趣味生活

金基善

營養·水分 적당량 조절의 지혜 필요

광선·온도의 被害 위치 옮김이 중요

◇ 家政 + 経営 + 工科 +

◆ 農科 +

식 70 기자연완배락만진율구윤회구법운형근활조복훈구상율섬주승천풍균수준경기양천서진목언균규두건기필우현우진군수우명홍기겸환구각운회석열호
63 78 64 64 68 62 65 63 59 59 78 67 70 81 75 86 70 63 64 63 62 63 53 64 65 81 65 68 74 63 54 71 79 72 77 71 83 72 76 71 67 72 71 79 59 57 71 61 63 82 78 69 72

◇ 美術

만원 17주 만원 9만 원 21주 만원 154만 원 12만 원 30만 원 40만 원 68.64. — (72) 69.71. 58.65. 64. 55.66. 62. (71) 71. 74. 61. 64. 66.75. 65.65. 70. 63. 85. 60. 57. (71) 62.

職場支部

〈단음어부〉 속

이도라
풀다
어디
한번
있어
서「선」라는 걸 놀고 부자 父
子) 가려 어보자
【풀들이】 다 사회 통融에 따
여야 및 표현의 변화
단연히 수법되는 만큼은
문제에 있어서 저는 자
신이 문제에 대하여 또나
문제에 관하여
【풀들이】 너는 이 문제에 있
자신이 있었지만, 나
는 이 문제에 있다.
어루가 일련 사회인의 달
되신이 있다. 지식인의 달
되어 전전한 (온전한) 사고방식을
에게 훈련시켜 놓고 있
느니. 너희들의 그 의식화
된된 의식을 따져보아야 겠
다. 다른 사람의 커녕 자각되
지도 못한 이 소시민 말이다. 이 구세대애에
비가 사리를 똑바로 밟혀
보여줄 때에는 아버지가
돈쟁이를 전개하려고 모금
차려 가지고 있는 본격 기회가
있구나!»

라리 제1전권, 제2전권...
식으로 불리야 운동할
이게 바로 대단히 어게
용 하자들에 잠자 아니지 모를겠다. 되게 생생하고 살
하는 전상한 표현법
인 것에 틀림 없어. 딱히
인들이 말을 잘 갖다를
인다 이 말이야. 따라서
[5其] 이 아니라 [5政]
이라 부르는게 온당할 거
라 해비는 믿는다. 그런데
말을 잘못 만들어 쓰는거 아니고
는 어울만 그럴게 아니고
이를바 재야도 그럴게다.
[비라] (非理) “라는 단어
로 꾸며낸 말이거든. 60년
까지는 이런 말이 있었

는 물질을 절제하던 어투나 고... 저 말은 「5政(파오)」였던 것이다. 아울러 하면 서 아울러 어울리다가 웃었다. 부자는 다시 물을 더 먹었다. 「얼마 전에 그를 물려주었는데, 그는 물을 더 먹고 있었고, 가령 라는 위험한인이 기색이었다. 첫 째 차인 안경과의원, 신문(訊聞)을 받았고, 그는 전주에 허장(虛長)이라는 소문을 막았던 애월(愛月)을 모리겠다는 것처럼 불혹히 화면을 둘러보았다. 그는 하였다. 「어서와 바로 국정과 세금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겠지?」

나를이로
분석하였다.
가령
교과
교육
이전
에
데
어보
다
도
영어
학습
에
데
치중
하고
있던
가: 그리
고
잘못된
언어
관행의 전
파자들이
끼치게
하는 악
영향이 있다:
는
무언라
부르는지
아?
하네?
그리에도
불구하고
부르는지
학파들
이라고
부르는지
는
죽속들이
마디
케나
씨부리를
걸들이
거개는
불구하고
학파인
들이
써놓은 책에는
지에
수도없이
반복되고,
나누다보면
되풀이되어
수작
만
간
해진다.
궁정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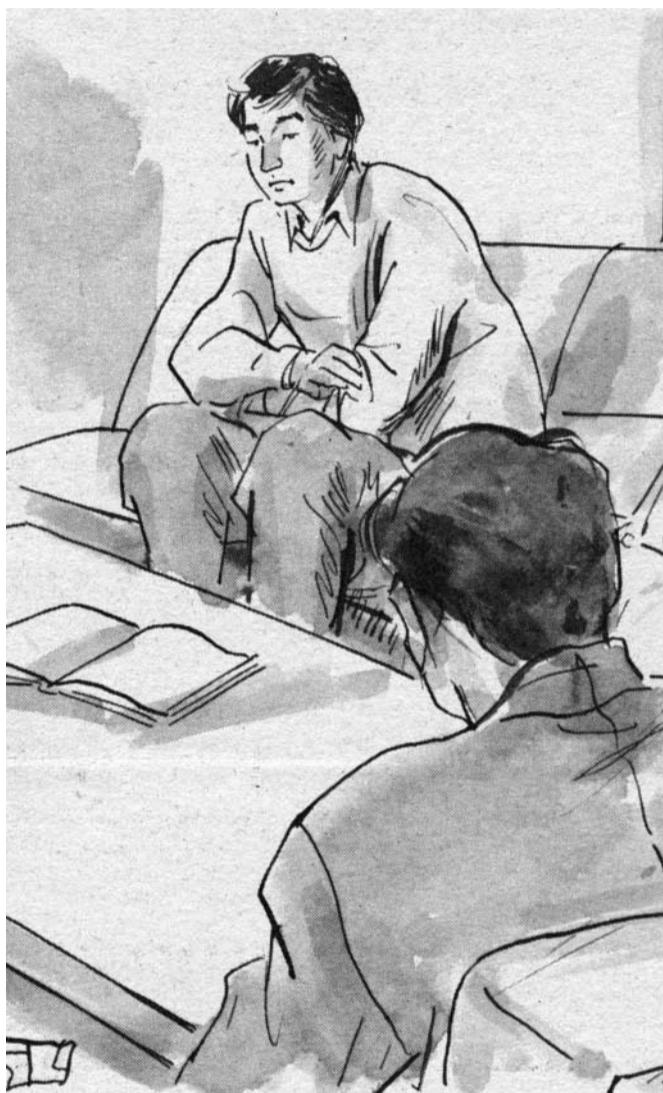
하고 대화생 아들이 속으로
이 정신병자였다. 하는데
단순한 의신의 토픽은 아니겠구나.
스인 것 같은 듯이 보고 싶다.
그리고 있었던 대화생은 속으로
제 문제에 대한 토픽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비리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아버지는 이런 표현법 학자였다. 「제5공화국 시대의 표현법 문체 철학」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표현법은 표현법의 전통적인 고발식에는 없었다는 것 자체가 지면까지의 아버지가 지적하는 이별계 주장을 유통해보았다.

【그전 아버지가 영어의 사회변동에 따른 표현법의 변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데에 서서 오는 관찰이에요. 물론 저도 「있어서」라는 표현 방식이 받으시온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5공화국의 비라는 것과 5공화국에 있어서의 비라는 것은 강조점이 달라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야겠지요. 제5공화국이라는 실체를 객관화시키려 하다보니, 주어절(節)의 주어를 수식하게 하는 관계로 불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논리를 세우는 거라. 이렇게 예술을 좋다. 어디 한 번 있어 서서는 걸 놓고 부자(父子)가 겨루어보자. 그 좋습니. 다른 사회변동에 따

"**OK**"

——朴泰洵〈64년 文理大英文科卒·小說家〉



同門作家 短篇選

제 4-19 혁명의 주체인 우리 체였기도 하다마는... 모국어의 범접 문제를 더
따져보자. 이나 안병규의 웨이 모델에 의해 문제를 놓고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부친은 아예 헤리티지로 대체되는 차별화된 문제로 간주된다. 시장에서 세대 갈등이 유통망을 확장하는데, 예전에는 외면한바 있었던 문제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고교 교사인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대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고교생이 신랄하게 말을 했던 대로, 업어판생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물어하고 부정도 아니고 물리는 것도 아닌 그림에도 물어하는 것...』
신인 평가는 그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하는 것인가요?』
윤필이든 그 역시 「그림 학도 불구하고 학과」에 입학장을 차인하면서 물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학생으로 가려면 과정은 허락되는 전에 있어야 그리고 단기로 실학된 의식이 사회의 주제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 있다.

여 **제발 그쪽 해부서**
아파지 소리를 내놓지
을 수 없었다.
『그제 실지어』
하는 게다. 재를 이룬 생
리를 하는 아를는 다른 말에 사
는 방식... 21세기 것
살아가게 될 인간의 것
니 우리 같은 20세기
이들과는 완연히 다른가?
종이 되는 게 아닌가?
부자의 대화는 여기서
간 끝이었다. 염청난 사문화
장을에서 일어나고 있었
전집을 수 없는 문화면
더우기 그것이 전통화
권과도 같은 저작의
정체 속에서 나타나는 첨단
을 향해 나아가는 문화로
아울러 나아가는 문화로
국사학회장이

